



기획특집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 의료 84년의 역량을 집약한 서울 서북권 대표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4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17층, 지하 7층, 808병상을 갖춘 은평성모병원은 최고의 의료진, 최신 시설과 첨단 의료 장비는 물론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성모님의 품처럼 따뜻한 치유 환경을 구현하며 가톨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 진료 예약 1811-7755 | 홈페이지 www.cmcep.or.kr

■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병원



신부님과 수녀님이 수술을 앞둔 환우의 손을 잡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은 은평성모병원의 환자 사랑과 전인 치료를 상징합니다. 병들고 지친 환우들이 원목자를 만나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은 사회사업팀을 통해 보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의 빛을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병원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국내 두 번째 병원으로 로비와 병원 곳곳에서 ‘생명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설계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초대형 숫자와 색깔로 식별하는 ‘쉬운 길 찾기’, 자연 채광의 휴게 공간, 무장애 시설 등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도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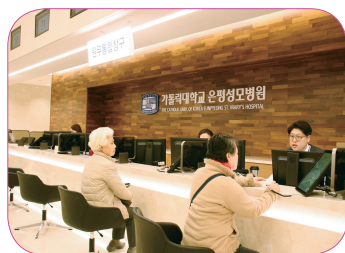
■ 대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치유 경험 제공



병원과 직결되는 약 2,000평(6,743㎡)의 녹지와 그 안에 조성된 약 800평(2,658㎡)의 ‘치유의 숲’은 환자, 보호자,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친환경 공간입니다. 또한 로비에서 만나는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내 성당과 루르드 성모상, 공개공지의 성가정상, 치유의 숲 속 성모상과 14처상은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줍니다.

스도’, 원내 성당과 루르드 성모상, 공개공지의 성가정상, 치유의 숲 속 성모상과 14처상은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줍니다.

■ 환우의 시간에 집중하는 기다림 없는 병원



심장혈관병원, 혈액병원, 안센터 등 12개의 다학제 협진 센터와 당일 접수, 진료,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원데이-원스탑’ 진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환자

를 위해 마련한 ‘신속 진료 시스템’은 어떤 순간에도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냅니다.

■ 첨단 의료 장비 및 스마트 의료 서비스와의 만남

꿈의 암 치료기 트루빔, 디지털 PET-CT, 다빈치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의료 장비는 물론 음성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회진 로봇이 의료의 질을 한층 높여 줍니다. 또한, 전체 병상의 약 93%를 병상 간격 1.5미터의 4인실로 구성하고 낙상 방지용 저상 전동 침대를 도입하는 등 환우의 안전과 쾌적한 의료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